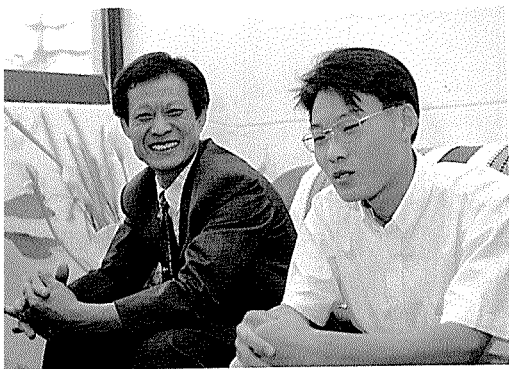


아버지는 지부장, 아들은 제과학생 꿈 부른 「2대 제과인」

아버지와 아들 이양우 & 이상민



소리없는 이양우씨의 웃음에 아들에 대한 사랑이 가득 배어있다. 아버지가 내 일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를 자칭하셨으니,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가.

상민이는 제과업계에서
첫발을 들여놓은 초년생 기술자다.
그의 목표는 '일등 기술자'다.
아버지가 힘껏 밀어주신다고 하셨으니
열심히 해 볼 생각이다.
그의 아버지 이양우씨는 천안에서
제과점을 경영하는 기술자다.
아들이 뛰어난 제과세계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가 될 생각이다.
아들이 내가 했던 일을 하더니,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가.

한번도 본적이 없는 증조할아버지의 얼굴이 가게 한쪽 벽면을 장식하고 있고 아버지가 나만큼 어렸던 나이에 근엄한 표정으로 할아버지와 함께 서있는 모습이 사진으로 걸려 있다.

이름도 들어보지 못한 할아버지의 아버지가 즐겨 사용하던 물건이 벽난로 위쪽에 소중히 간직돼 있고 할아버지가 가장 아끼셨다는 파이프 담배가 한켠에 정갈히 보관돼 있다.

우리는 곧잘 이런 얘기를 듣는다. 유럽은 현재 살고 있는 집들이 아버지의 아버지, 그보다 훨씬 오래전에 지은 집이다. 그래서 낡고 깨끗하지는 못하지만 그 안에는 위엄과 역사가 살아숨쉬는 듯해 좋다. 가까운 일본은 5대째가 빵굽는 일을 하고 있다. 백년, 이 백년을 계속해서 한가지 일에 종사하는 사람을 만나는 것은 쉬운 일이다.

자식에게 자신의 직업을 물려준다는 것은 많은 용기가 필요

그리고는 우리 상황을 덧붙인다. 오천년 역사라고 떠들지만 서울 시내의 고궁 몇 개를 제외하고는 보여줄 것이 없다. 이것마저도 너무 낡고 초라하다. 내 자식은 나보다 나왔으면 좋겠다. 그녀석에게 내 직업을 물려주고 싶지 않다. 얼마나 힘이 드는데. 그녀석은 좀 편하게 돈을 벌었으면 한다.

이상민군은 올해 3월 한국제과고등기술학

교 정규반 학생이 됐다. 고등학교를 막 졸업하고 제과고등학교에 입학했으니 이제 갓 19살의 학생이다. 상민이는 집이 천안이다. 그래서 기차를 이용해 통학을 하고 있다.

그의 아버지 이양우씨, 천안에서 제과점을 경영하고 계신다. 상호는 황실제과점. 19살부터 제과기술을 배우기 시작했으니 경력 30년의 기술자다. 지난 몇년간의 외도를 청산하고 자신의 제과점을 연 것이 90년의 일이다. 현재는 천안지부의 지부장을 맡고 있다.

“올해는 집안에 일이 많은 해인 것 같습니다. 아들 녀석이 제과 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저도 천안지역의 지부장을 맡게 되구요. 또 상민이 덕분에 제과학교 육성회장이라는 감투도 썼습니다.”

“아버지가 지부장을 맡으신 후 너무 바쁘세요. 그래서 가게일은 거의 어머니 차지입니다.” 상민이는 바쁘신 아버지가 약간은 불만인 듯하다.



"반죽이 잘못 돼서 부드러지가 못하고, 설탕이 안 녹아서 곳곳이 희끗희끗하고, ..." 아버지의 지적은 끝이 없다. 인제품 나도 아버지 만큼 될까.

그러나 상민의 얘기를 듣고도 소리없는 웃음을 지으시는 아버지는 상민의 불만도 대견하다는 표정이다.

그래도 아버지가 지부장을 맡으신 것이 그에게는 자극이 되는 듯하다. 학교에서 공부를 게을리 했을때 아버지 생각이 나고 열심히 해야겠다는 생각이 든다니 말이다.

상민이가 제과학교를 선택한데는 역시 아버지의 영향이 컸다. 그 역시 남들처럼 대학을 다니고 싶었고 당연히 고등학교를 졸업할 때는 대학을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제과학교를 가는 것이 어떻겠냐는 제의를 하셨다. 당연히 대학에 가야겠다고 생각한 그에게는 약간 어리둥절한 일이었다. 그리고 갈등을 일으키는 말이기도 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 생각할 시간을 달라고 했다. 몇일을 생각한 끝에 결정을 내렸다. 아버지처럼 제과기술자가 되겠다는 결정이었다.

"막상 결정을 했지만 사실 갈등도 많았습니

다. 제과학교에 원서를 낼 시기가 친구들이 대학에 합격을 해서 축하해 주는 때였습니 다. 대학에 입학한 친구를 보니 나도 한번 원서나 내볼 것이라는 욕심이 생기더군요."

"상민이에게 제과기술을 배우는 것이 어떻겠냐고 권하기는 했지만 저도 친구 자식들이 대학을 다닌다고 자랑을 할때는 솔직히 부러웠습니다. 그래도 열심히 다니니 마음도 놓고 기분도 좋습니다."

"대학에 입학할 해도 열심히 할 수 있다는 자신도 없고, 적당히 시간을 보내는 것보다는 확실한 기술을 배우는 것이 낫다고 생각합니다. 아버지가 만드는 빵을 좋아합니다. 아버지가 만드는 제품은 모두 이쁘고 정성 들여 그림을 그리시는 모습이 마치 화가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부럽다는 생각도 종종합니다." 아버지 같은 훌륭한 선생님을 둔 것이 자랑스럽다는 그의 말이다.

그래서 이 길에 들어선 것에 대해서 후회를 하지는 않는다.

제과점을 하시는 아버지의 권유로 제과학교에 입학

상민이의 학교 생활은 신기한 것 투성이 다.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만드는 것을 보기만 했는데 이제는 자신이 직접 빵을 만드는 것도 그렇고 같은반 학생들의 구성이 다양한 것도 재밌다.

현재 제과학교 학생중 상민이를 비롯한 11명의 학생을 제외하고는 모두 그보다 나이가 많다고 한다. 만이로 자라 여동생에게 항상 의젓한 오빠 행세만 해야 했던 그에게 자신을 키워줘 주는 많은 형들과 누나가 있다는 것이 신난다.

또 그가 속해 있는 5조에서 가장 어린 나이에도 불구하고 조장을 맡고 있는게 자랑스럽기도 하다.

"친해지고 싶은 친구가 있으면 제가 먼저 말을 겁니다. 아마도 불임성 있는 제 성격을 보고 형들이 조장을 시켜준 것 같아요."

그래도 그에게 고민은 있다. 조장으로서는 형

들이 믿고 맡긴 만큼 잘해내고 싶은데 가끔은 다른 조에 비해 실습한 제품의 상태가 떨어지는 때가 있기 때문이다.

“생각되도록 안되는 때가 많아요. 반죽에서 실수하는 때도 있고 빵을 구웠는데 안익는 경우도 있구요.” 이 순간이 그에게는 가장 아쉬운 시간이다.

아버지께서 한 말씀 거드신다.

“모든 것이 익숙해져야지. 아직은 손놀림이 영성해서. 반죽을 할때 공기 주입에 신경을 써야 빵을 구워도 제대로 나오지.” 이번에는 아버지라는 위치를 떠나서 먼저 배운 선배로서 그에게 충고를 하신 것이다.

상민이는 학교수업이 끝난후 집으로 돌아와 항상 그날 배운 제품을 만들어 본다고 한다.

“보통 9시정도에 가게로 내려가 저혼자만 들어 봅니다. 그런데 잘될때는 11시 정도면 끝나는데 안될때는 1시가 넘어서 끝나기도 합니다.”

그런데 기술이 몸에 익숙해지기 위해서 하루도 빼놓지 않고 연습을 하는 상민이의 노력을 아버지가 몰라주는 것 같은 말씀을 하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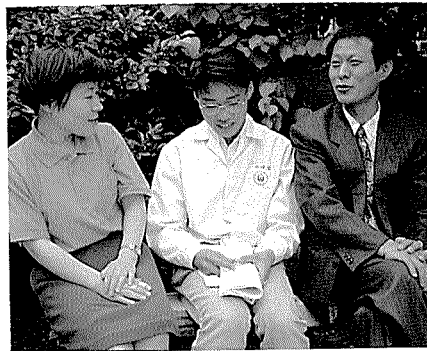
“만들면 뭐 합니까. 기술이 서툴러서 만든 것을 팔지도 못하는데. 그래서 재료만 낭비하는 때가 많습니다.” 아버지의 즐거운 꾸밈이다. 상민이가 갑자기 고개를 들지 못한다. 자신의 부끄러운 한 면을 들켰다는 분위기다.

그래도 그가 삼촌이라고 따르는 공장 형들이 한번 해보라고 떼어 주는 반죽이 그를 가장 신나게 한다. 형들도 이제 자신을 한사람의 어엿한 기술자로 인정해주는 순간이기 때문이다.

실수투성이지만 형들과 어울리는 실습시간이 가장 즐거워

상민이는 학교에 입학하면서 아버지께 한가지 약속을 받아냈다. 학교를 졸업하면 일본에 있는 제과학교에 유학을 보내주겠다는 약속이다. 이왕이면 최고가 되고 싶고 그러기 위해서는 선진국 제품에 대해서 더 많은 공부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요즘은 일본유학을 대비하기 위해 외국어 학원에 다닌다.

“한번 시작했으니 끝까지 가르치고 싶은게 욕심입니다. 물론 상민이가 능력이 있어야겠



1 아버지 이양우씨. 힘이 닿는한 일본과 프랑스 유학까지 시키고 싶은게 그의 욕심이다.

2 상민이가 열심히 해서 십년 후에는 훌륭한 기술자가 될 것이라는 선생님의 말씀에 십년이내에 유명한 기술자가 될 자신이 있다고 거침없이 말한다.

3 아들 이상민군. 예쁜 과자를 만들고 케이크 위에 그림을 그리는 아버지 모습에 보기 좋아 제과일을 시작했다.

지요. 그러나 힘이 닿는한 일본과 프랑스 유학을 시키고 싶습니다.” 아버지의 욕심이다.

아버지는 상민이가 열심히만 한다면 십년 후에는 자리가 잡힌 기술자가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다.

그러나 상민이 생각은 다르다. 열심히 해서 십년 이내에 이름있는 기술자가 되겠다는 것이다.

상민이는 가끔 형들과 어울려 축구를 하러 갈때 들리는 제과점을 보면서 자신의 장래를 계획하고 있다고 한다.

“사람들 입맛이 고급스럽게 변하면서 빵보다는 양과자를 더 선호하는 것 같습니다. 모양과 맛이 좋은 양과자 전문점을 하고 싶은 욕심입니다.” 이미 자신의 미래 계획에서도 어느정도 설계를 하고 있는 그의 말이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부족한 점을 빨리 보완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일이라고 한다. 실습 시간중에 제과미술키시간이 있는데 영 맥을 못추는 것이다. 지난번 아버지가 회갑 기념 5단 케이크를 그리시는 모습을 보고 마음이 더 급해졌다. 자신이 생각하기에 아버지가 ‘너무 잘그린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한길을 걷고 있는 동지이지만 가끔은 의견 충돌이 나기도 한다. 아버지가 너무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이다.

“실습한 제품은 어떻게 하니.”

“집에 가지고 가서 먹던지 버리죠.”

“고아원 애들 갇다주면 굉장히 좋아할텐데.”

“실패한 것을 누가 먹어요. 설탕은 너무 많이 들어가고 소금은 너무 적게 들어가서 간도 안 맞는데.”

상민이는 아버지의 극성이 이해가 안된다는 표정이다. 아버지 역시 상민이가 이해가 안된다. 조그맣게 ‘아이를 갖다주면 좋아할텐데’라고 혼자 말씀하시는 모습이 그렇다.

아버지는 상민이가 제과 기술인이 되겠다고 결심한 것이 아직도 고맙다. 어렵고 힘들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아들에게 권유한 것은 제과에 대한 그의 욕심이 크기 때문이다.

이제 자신을 이해해 주는 동지를 만났다는 것이 지금까지 그의 외로움을 덜어 줄 것 같다. 상민이가 언젠가는 아버지와 어깨를 겨루는 기술자가 되고 자신을 뛰어넘는 날이 올 것이라는 사실이 오늘도 그의 가슴을 설레게 한다. <글 김주희> 